

북스

Books

창조·구원 넘나든 神 통해 서양문명 보기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

김용규 지음

창조론과 진화론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감자'다. '태초의 6일'이라는 특정 시기에 일회적으로 모든 생명이 창조된 것이라는 이론과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부단히 진화한 결과라는 양측의 주장은 늘 팽팽하다. 또한 이 논쟁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은 그 중심에 '신'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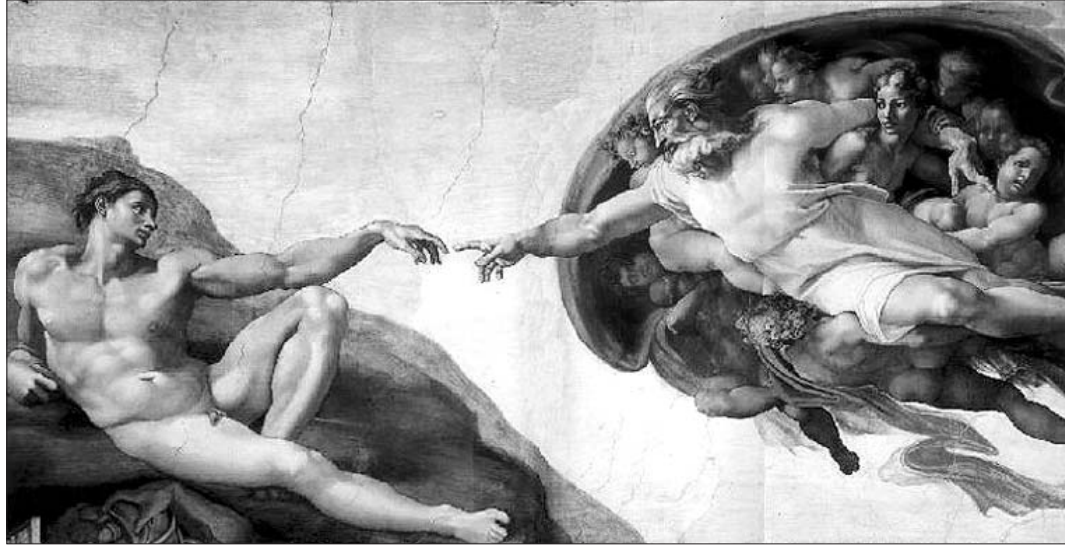
철학자 김용규씨가 서양문명을 오랜 시간 지배해 온 기독교의 신(神)을 분석한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을 펴냈다.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 등 철학교양서를 주로 써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철학과 신학을 접목시켜 서양의 신에 다가감으로써 서양문명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추구한다. 신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신에 대한 이해 없이 서양의 정신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저자는 이 부분에 집중한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신 자체와 신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신을 통해 서양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책은 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하이켄베르크, 비트겐슈타인에 이르는 철학자와 괴테, 셰익스피어, 단테, 미켈란젤로 등의 예술작품과 예술이론을 하나의 그물로 총합해 엮었다.

또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유일성은 배타성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속 신은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지만 철학자 김용규씨는 이를 '신학적 오류'라고 주장한다.

이 아니라 포괄성이며, 일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화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배타성, 폭력성은 박해를 견디고 교단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뒤 교세 확장을 위해 굳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시급히 버려야 할 '반신앙적 유산'이라고 강조한다. 신의 유일성을 내세우며 학살과 강간, 약탈, 방화를 일삼은 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과거를 그 이유로 든다.

12~13세기 성전(聖戰)의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과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십자군의 살육과 약탈이 그 역사다.

신의 유일성에 관한 인식의 변천도 살펴본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야훼를 여러 부족신 중 하나로 파악했다. 하지만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등장한 기원전 8~6세기를 거치며 보편적 정의란 개념이 생기면서 유일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의 설명도 흥미롭다. 이 그림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신은 흰 머리, 흰 수염의 노인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성, 여성, 늙은이, 젊은이가 아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예술적으로는 위대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오류다.

저자는 미켈란젤로가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헬레니즘의 초인적 영웅에 가까운 신인 제우스의 모습을 빌려와 헤브라이즘의 신을 그려냈다고 설명한다.

〈휴머니스트·3만7000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살아있는 세계 위인 58명

지혜 담긴 '위즈덤' 재탄생

흔란의 20세기를 넘어 21세기를 창조한 세계적 명사 58명의 생생한 사진과 솔직담백한 이야기로 호평을 얻었던 '위즈덤Wisdom'이 인생(Life), 사랑(Love), 아이디어(Ideas), 평화(Peace) 네 권으로 나뉘어 재탄생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네 가지 주제를 집약한 책은 살아있는 위인들의 지혜가 가득하다.

또한 가로세로 15센티미터 정사각형 판형을 꼭 채운 그들의 생생한 표정이 담긴 사진에는 말로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한 그들의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넬슨 만델라, 프랭크 게리, 클린트 이스투우드 등을 만날 수 있다.

〈센터·각권 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도 그림습니다' '토닥토닥'

이철수·이수동지음

한장의 그림은 때론 긴 글보다 더 많은 이야기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화가 이수동과 관화가 이철수가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 책을 펴냈다. 두 책 모두 찬찬히 그림을 들여다보고 글을 읽다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절로 고개가 끄덕여준다. 꼭 내 마음 같아서.

이철수의 '오늘도 그림습니다'는 그가 운영하는 이철수의 집(www.mokpan.com)을 통해 6만여명에게 보낸 '나눠줄 편지' 모음집이다.

그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욕심 하나씩 내려놓기, 조금 더 나누기, 더 많이 행동하고 저항하기 등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라고 말하며 관화 그림이 있는 150여편의 편지를 보냈다.

투박하고 간결한 그의 목판화 작품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무살 먹은 곰인형을 바라보며 '인간'에 대해 생각하고, 연필심을 깎으면서 품성에 대

가슴 따뜻해지고 미소가 나오는 편지와 그림



해 생각하게 해준다.

달콤한 늦사과향과 일출할 양식이 될 김장용 무, 한여름날의 파리채, 우산과 장화 등 생활 주변의 소소한 것들은 그의 관화와 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귀한 존재로 거듭난다.

또 대운하, 비정규직, 무상급식에 대한 굳은 소신이 엿보이며 폐지를 줍는 노인, 베트남 쌀국수를 보고 떠오른 이웃의 베트남 아줌마 등에 따뜻한 시선

을 보낸다.

매화, 봄날의 풋풋한 기운, 여름의 짙은 신록 등 자연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삼인·1만2000원〉 이수동의 책 '토닥토닥'은 '행복을 그리는 화가 이수동이 전하는 80통의 위로'라는 부제처럼 생활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림과 글이 담겨 있다.

그의 작품의 트레이드 마크인 커다란 배경 속에 숨은 그림처럼 감춰진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여전하고, 동화같은 풍경, 강한 원색과 푸근한 파스텔톤이 어우러진 그림은 위로가 된다.

연인, 가족간의 사랑 이야기에 가슴 따뜻해지고 태극기를 꽃밥과 수저로 표현한 '잘 먹고 잘 살자', 친구와의 우정을 떠 올리게 하는 '좋은 술이 생겼다', '오늘, 수고 했어요' 등 수록 작품 모두 행복 바 이리스를 전한다. 이수동은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송승헌이 그린 그림의 실제 화가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아트북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언더더 킹 1, 2=세계적인 작가 스티븐 킹의 최신작. 인구 1000여 명의 마을이 갑자기 투명 동에 갇혀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작가가 1970년대 처음 구상해 30여 년 만에 완성했다. 소설은 미국 메인주의 평온한 체스터필드 마을을 어느 날 투명 동이 뒤덮으면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로 시작된다. 1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는 대작으로 전체 3권으로 출간 예정이며 1·2권이 먼저 나왔다. 〈황금가지·각권 1만3000원〉



▲케네디와 말할 수 없는 진실=우리가 알지 못했던 케네디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평화운동가인 저자 제임스 더글라스는 최근까지 발견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토대로, JFK 죽음의 진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말·글빛냄·3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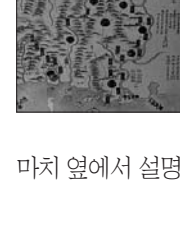
▲무기를 내려놓으라!=1905년 여성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평화운동가이자 작가인 베르타 폰 주트너 1889년 발표한 반전 소설. 유럽 안락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던 19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전쟁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주인공은 오스트리아의 부유한 퇴역 장군의 장녀로 태어난 마르타 알트하우스로, 오스트리아-이탈리아 전쟁, 프로이센-덴마크 전쟁 등 네 번의 전쟁을 거치며 가족을 모두 잃는다. 〈뿌리와의파라·1만8000원〉



▲식객, 팔도를 간다-경이편=허영만의 '식객' 에피소드 가운데, 독자들에게 사랑 받은 이야기만을 선정해 엮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컬렉션. 죽을 맛과 맛과 죽을 맛의 황복회,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맛 '부대찌개' 등 경기지역 고유의 음식들을 가득 담고 보는 맛과 읽는 맛을 버무렸다. 전 8권으로 예정된 시리즈의 첫 편이다. 〈김영사·8500원〉



▲마르셀 뒤샹-현대미술의 창시자=현대 예술의 거장' 시리즈.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현대미술을 이끈 '샘'의 작가 마르셀 뒤샹의 평전. 프랑스의 예술비평가이자 전시기획자인 베르나르 마르카데는 뒤샹이 기성품을 이용한 '레디메이드'(ready-made) 예술을 만들어 내게 된 배경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무관심의 자유'와 '게으름의 권리'를 추구했던 뒤샹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울음문화사·3만2000원〉



▲옛 사람의 발길을 따라가는 우리건축 답사 1, 2=최종현 한양대 교수가 매년 진행했던 옛 건축 답사 강의 내용을 묶은 인문지리 기행서다. 예사림의 시선과 생각으로 옛 건축물을 다시 읽는다. 강원도 관동팔경과 경남 남해안, 전남의 정자, 충남 해안 지역, 강화도, 전북의 관아 건축, 경주의 도시 계획 등 전국 곳곳의 옛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들 마치 옆에서 설명하듯 구어체로 정리했다. 〈현실문화·2만2000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1가지=짧은 일러스트레이터인 리처드 혼이 '고급 식당에서 비싼 메뉴를 주문하고 돈 안 내고 도망간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확 그만둔다' 등 엉뚱하지만 기발한 도전 과제 101가지를 제시한다. 해리포터 시리즈 표지 디자이너인 저자가 직접 그린 삽화도 흥미를 자아낸다. 〈민음인·1만1500원〉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행동한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